

코로나19 현안 업무보고

2020. 9.

여성가족정책실
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관리 강화
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육·돌봄시설 및 여성·가족·외국인이용시설 대상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,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함

1 어린이집 코로나19 감염예방 추진

□ 어린이집 휴원 및 긴급보육 현황

- 휴원 연장 : '20.2.25~ 별도명령시까지(전체 5,418개소) ※ 당초 8.18 개원예정
 -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(8.16) 및 휴원 권고에 따라 휴원 연장 조치
- 긴급보육은 맞벌이가정 등 가정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이용
 - 휴원 장기화로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나, 2단계 격상 및 부모대상 안내문 발송 등 긴급보육 이용자제 권고(2회, 8.18/24)를 통해 긴급보육 비율 감소

일자	2.26	3.2	4.9	5.7	6.4	7.2	7.23	7.30	8.20	8.24	8.27
이용률(%)	19.6	13.4	43.9	68.0	72.1	81.1	83.2	63.7	59.7	48.2	36.2

- 보육교직원도 긴급보육에 필요 최소한만 배치(교대근무)하여 출근인원 감축

□ 코로나19 방역물품 등 긴급 지원 실시

- 마스크, 손소독제 등 신속한 방역물품 지원(61억원, '20.2~7월)
 - 마스크 3,355백만원, 손세정제 1,826백만원, 체온계 1,009백만원 지원
- 시설 규모별 전문업체 방역소독비 지원(28.5억원, '20.4월, 시설별 42~109만원)
- 어린이집 운영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운영비 지원(예비비 68억원, '20.5월, 2,840개소)
- 청소 및 방역 일자리 지원으로 방역부담 완화(64억원, 675명 예정, '20.8~12월)

□ 「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」 어린이집 방역지침 마련 및 점검 지속 실시

- (위생·방역) 외부인 출입 차단 및 실내 방역 강화
 - (외부인 출입, 특별활동) 원칙적 금지, 시설보수·평가 등 업무관련 경우만 제한적 허용
 - (마스크 착용) 보육교직원 및 아동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(영아 제외)
 - (방역) 교재·교구 매일 소독, 매일 2회 이상 발열 체크
 - (거리두기) 개별놀이(학습) 중심 진행, 급간식 및 낮잠 시간 거리 확보

- (지도점검) 긴급보육 및 방역지침 준수여부 집중 점검 실시(2.26~, 5차)
 - (1~4차) 긴급보육 운영 점검(2.26), 부모(200명)대상 긴급보육 의견청취(3.3), 자치구별 전담직원 지정 점검(3.5~13), 급식·방역·위생 등 전수점검 실시(7.6~7.31)
 - (5차)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보육 및 강화된 지침 이행여부 市 자체점검(8.27~)
 - (민원센터) 휴원·긴급보육 민원 해소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(보육과 전담 2명, 2.26.~)

2 초등돌봄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 추진

□ 초등돌봄시설 휴원 및 긴급돌봄 현황

- 지역아동센터(433개소)·우리동네키움센터(86개소) 휴원 : 8.18.(화)~별도명령시
 - ※ 초등돌봄시설 휴원(2.25.~ 7.20) / 보건복지부 요청에 의거 운영재개(7.21~8.17)
- 휴원기간 동안 돌봄 공백해소를 위해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긴급돌봄 제공
 - 학교휴업상황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확대 및 온라인 학습 지원 등 제공
 -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미등원 아동에 대한 도시락 배달로 급식 지원

※초등돌봄시설 긴급돌봄 운영 현황 ('20.8.28)

구분	개소수	정원	등원아동	이용률(%)
지역아동센터	433개소	11,620명	4,082명	35.1%
키움센터	86개소	2,120명	589명	27.8%

※ 초등돌봄시설의 특성상, 상시 이용 아동 보다 희망하는 요일 및 시간 등 일시 이용 아동이 많아 시간당 밀집도는 더 낮을 것으로 추정

□ 긴급돌봄·방역 현황 모니터링 강화 및 현장 대체인력 투입 지원

- 이용 밀집도 완화 등을 위해 긴급 돌봄 운영 가이드 라인 마련 협의
 -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(예시 : 등원인원 제한, 우선순위) 검토 요청(8.19)
 - 이용 가정에 최대한 가정 돌봄을 독려, 부득이한 경우(맞벌이·한부모 가정 등) 외 등원 아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(8.24)
- 소독 강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지침 준수 지속 모니터링 실시
 - 1일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, 주 1회 센터 전체 소독 등 방역 강화, 현장 점검
- 현장 종사자의 피로도 완화를 위해 청소, 방역, 급식 등 희망일자리 채용 지원(9~12월)

3 여성·가족·외국인시설 방역 조치

여성·가족·외국인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운영 현황

(단위 : 개소, '20.8.28. 기준)

구분	합계	가족·아동		여성		외국인
		이용	생활	이용	생활	이용
총 시설수	352개소	57	141	101	35	18
휴관 시설수	176개소	57	-	101	-	18

- 여성·가족 이용시설 휴관 및 프로그램 운영 중단(8.18.(화)~별도명령시)**
 - 여성플라자, 여성일자리기관, 가족시설 등 휴관 및 프로그램, 행사 운영 중단
 - 매주 1~2회 전문 방역업체 방역 실시, 1일 1~2회 시설·기구 소독 실시
 - 방문상담 포함 외부인 출입 통제(유·무선 상담으로 대체, 긴급지원 기능만 유지)
 - 방문객 전자출입명부 작성, 이용자·종사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
 - 출입구에 고정식 열화상 카메라 설치하여 체온 측정, 출입동선 일원화
- 여성·가족 생활시설 방역 관리 강화**
 - 기존 입소자 위주 운영, 불가피한 신규 입소 시 별도 분리공간 관리
 - 시설 이용자·종사자 일일 모니터링(종사자 문진표, 증상체크 등) 및 상황보고
 - 입소자 외출제한,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 출입통제, 출입시 체온 체크
 - 마스크 상시 착용, 일 5회 손씻기 교육, 매일 자체 방역 실시 등
- 외국인지원시설 방역 예방체계 구축**
 - 외국인지원시설 집합 프로그램 중단 조치(1.29) 및 휴관 조치
 - 서남권 글로벌센터를 외국인밀집지역 상시 방역전담센터로 지정·활용
 - 방역전문업체를 통해 외국인주민 다중이용시설 26개소 정기적 소독 실시
- 「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」 방역조치 시행 및 점검 지속 실시**
 - 외부인 출입 차단 및 실내 방역 점검 실시
 - 점검내용 : 방역계획 수립 및 준수 여부, 종사자·이용자 관리 등
 - 점검방법 : 시·구 공무원 현장점검 및 점검표에 의한 시설 자체점검 병행
 - 점검결과 : 방역지침에 따른 시설 운영 및 이용자·종사자 방역 수칙 준수

4 외국인주민 집중 관리 및 외국인유학생 방역대책 추진

□ 외국인주민 대상 방역체계 마련

- 서남권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 코로나 19 신고·접수센터로 운영(1.28~)
- 공적마스크 사각지대에 있는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주민에 마스크 배부(25만개)
- 코로나19 관련 정부시책 등 12개 언어 즉시 번역 후 배포·게시
-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422개 점검 및 검사·건강지원 홍보(5월)
- 외국인주민밀집지역, 법무부-시-구 합동 점검 및 계도 활동(7.3/67명 참여)
- 미등록외국인(노동자) 주요 취업분야 6개업종 및 직업소개소 현장방문 홍보(7.22~8.14)

□ 코로나19 관련 외국인유학생 관리

- 시·자치구·대학 공동 대응단 구성으로 유학생 신속 대응 추진체계 마련(2.24~)
 - 공항 셔틀차량 지원 : 27개 대학 943회 운영, 1,315명 탑승('20.2.23~4.5)
 - 임시 거주시설 지원 : 대학·자치구 유희공간, 숙박시설 등 27개소, 1,169실
 - 지역사회 거주 외국인유학생 1:1 모니터링 운영 : 133명 운영
- 서울시 소재 외국인유학생 대상 마스크 배부(45개 대학, 62,290세트)
-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생활수칙 제작 및 배포(7만부, 국·중·영·일)

□ 2학기 서울소재 외국인유학생 입국 방역대책 추진

- 외국인유학생 16,800여명 입국(예정)에 따라 공동대응단 구성
 - 4,456명 기 입국, 5,000여명 입국 예정(~9월말), 7,200여명 입국 미정 ※8.20 기준
 - 교육부, 서울시 : 대책 총괄 및 입국현황 공유, 확진자 발생시 공동대응
 - 자치구(14개), 대학(28개) 자치구별 외국인유학생 관리대책 시행
- 입국전 사전안내 철저, 입국정보 공유, 입국 및 자가격리시 이동 지원
- 격리시설 운영·지정(10명이상 집단입국 외국인유학생은 구지정 격리시설 입소 원칙)
 - 12개 대학이 5개 호텔(626실) 격리시설 운영(준비) 중 ※ 8.27일 기준
- 모니터링·선별검사 등 관리강화 :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전담공무원 확대 및 불시점검
- 자치구(대학) 방역강화를 위한 재정지원(16개구 3,782백만원 기 지원, 2학기 추가 수요조사)

5 실내 결혼식장 방역 관리 강화

□ 결혼식장 시설 현황

- 서울시 소재 결혼식장 수 : 총 222개소(※ '20.8.21 기준)
 - 강남 29%(64개소), 중구·영등포·송파·서초 31%(68개소) 에 결혼식장 밀집

□ 현장점검 추진경과

- 생활속 거리두기 결혼식장 현장점검 실시('20.5~7월, 3차)
 - 전체 예식장 중 80% 이상 최소 1회 이상 계도·점검 실시
- 연휴기간 강남구 소재 결혼식장 긴급 현장점검 : 8개소('20.8.15~17일)
 - (잘된점) 출입자 관리, 마스크 착용, 방역소독, 발열체크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
 - (미흡한점) 식사장소 이격거리 미준수, 답례품 제공률이 여전히 저조
-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('20.8.19(수) 0시부터)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
 - 자치구별 현장 전수점검 및 행정조치
 - ▶ 1차(8.22~8.23) : 204개소(※ 강남구 20곳 서울시 점검, 예식이 있는 결혼식장 전수점검)
 - ▶ 2차(8.29~8.30) : 1차 시설 및 시정조치 대상시설(※ 강남구 18곳 서울시 점검)

<중점 점검내용>

- 실내 결혼식장 방역기준 : 결혼식 회차별 50명 미만, 출입명부 관리, 마스크 착용
- 결혼식장 뷔페 운영중단(8.19~) 확인, 음식 및 답례품 제공형태 및 방역수칙 준수여부
- 1차 점검 시 미흡 예식장 재점검, 이동동선 겹침 등 중점 점검

□ 향후계획

- 여성가족부-서울시-자치구 합동 결혼식장 현장점검 실시(9.5, 2개소)
-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(여성가족부) 지속 배포·홍보
- 자치구 현장 점검결과 보고 : '20.9.4(금)까지

☞ 예식업중앙회 자체분쟁 조정내용(공정거래위원회 권고안 참조)

-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식 예정일로부터 최대6개월(내년 2월)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허용
- 예정대로 결혼식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시정에 따라 최소 보증인원을 기존보다 감축 조정(10~40%)
- ※ 서울시 코로나19 상생상담센터 운영('20.8.26 ~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)
 - 운영주체 : 서울시,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
 - 주요내용 : 예식분쟁상담 접수,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간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중재

- 위반사례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집합금지명령 및 고발 등 행정조치(벌금 300만원)